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7,391억 확정

올해 본예산 6,992억 보다 5.7% 399억원 증가

구로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16일 폐회

구로구의 2021년 새해 살림살이가 올해 본예산 보다 6,992억 3천 500만원보다 5.7% 399억 2천 500만원 늘어난 7,391억 6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7,281억원, 특별회계 11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됐다. <관련기사 3면>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7,391억 원 규모의 구로구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며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12월 3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전심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심도 있

는 검토와 계수조정이 이뤄졌으며,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20년 본예산 6,992억 원보다 5.7% 증가한 7,391억 6천만원 원으로 일반회계 7,281억 원, 특별회계 11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개보수, 경로식당 운영,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등 41건에 22억 5,640만 원이 증액됐고,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 신년인사회 행사 관련 예산 등 6건에 22억 5,640만 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희서 의원) ▲서울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근 의원) 2건의 결의안이 원안채택됐고 ▲서울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향 의원) ▲서울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여 의원) ▲서울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자 의원) ▲서

울시 구로구 노동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서울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재만 의원) ▲서울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정형주 의원)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서울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됐다.



구로구의회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7,391억 원 규모의 구로구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박동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20일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안전처리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신축년 새해에도 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하고 싶은, 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을 만들어주는

서울형고교학점제

나만의 교육과정 만들기

고교학점제에선 학생마다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요

우리 반에 20명이 있다면, 20명의 서로 다른 교육과정이 있는 것이겠죠!

내 과목으로 진로 만들기

내가 선택해 나가는 여러 과목이 내가 꾸는 꿈,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만들어가는 10년 후의 '나'를 완성합니다.

과목 선택은 선생님들이 도와 주십니다.

소질과 전공을 심화하기

내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하나씩 들 때마다 나의 고민과 꿈은 충충히 쌓여요

이런 것들이 나의 전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학교 교과수업도 활용하기

우리 학교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학년 3반 김아성
4교시
경제수학

2학년 4반 이은진
4교시
생활과학

2학년 3반 박보연
4교시
문제풀이

2학년 4반 권용석
4교시
윤리와 사상

2학년 3반 하민지
4교시
미술 감상과 비평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구로구, 자치구 중 최고 등급

내부청렴도는 8년연속 2등급

구로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구로구는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했다"며 "전국 자치구 중 1등급이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과 내부 직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발생 현황 등을 합산해 1~5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 구로구는 지난해보다 외부청렴도는 0.45 상승한 8.70점, 내부청렴도는 0.14 상승한 8.17점, 내·외부 청렴도를 합산한 종합청렴도는 0.34 상승한 8.53점 받아 전체 평균 8.27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내부 청렴도는 2013년 이후 8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 <2면으로 계속>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의원 6명 조례안 발의 '붐물'



사진 왼쪽부터 조미향 의원, 박종여 의원, 최숙자 의원, 노경숙 의원, 이재만 의원, 정형주 의원

조미향 의원,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조례안 박종여 의원,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최숙자 의원,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 관한 조례안 노경숙 의원,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재만 의원,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정형주 의원,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 의원들이 구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조미향 의원은 위기가정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확대 및 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지원대상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민간·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박종여 의원은 구로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만 의원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운영 관리자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형주 의원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 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평화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교육의 기본 방향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공공시설의 이용 △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개웅산 자락길 현장 점검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 9일, 구로구민의 휴식처인 개웅산 근린공원 내 개웅산 자락길을 찾아 현장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개장을 앞둔 개웅산 자락길 조성현장을 살피고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녹색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개웅산 자락길 조성공사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행약자도 산림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웅산 근린공원 내에 길이 1,113m 폭 2.2m 규모의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곳곳에 공원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자락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9일 구민의 휴식처인 개웅산근린공원 내 개웅산 자락길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활동을 펼쳤다.

모했으며, 지난 9월에 착공하여 오는 18일 준공예정이다.

자락길을 둘러보며 박 의장은 구청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행한 관계공무원에게 구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현장 활동을 마친 박 의장은 "개웅산 자락길이 남녀노소 누구나에게나 사랑

받는 쉼터이자 구로구의 명소가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개웅산 자락길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구로구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 청렴도 평가 자치구 중 최고 등급

<1면에서 계속>

구로구는 그동안 개인, 부서별 일정 기준목표 달성 시 인증을 해주는 '청렴인증제' 행정처분 전 실시하는 청문절차에 '옴부즈맨을 참석시키는 '옴부즈맨 청문 입회제도' 직원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정기 교육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실시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청렴문자, 모바일설문, 청렴해피콜 등 촘촘한 리콜 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구청장까지 감사가 가능한 구민감사 옴부즈맨제도를 신설하고, 접대 문화 근절을 위해 청렴식권제를 만들어 공사 관리·감독, 계약 분야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구로구의 이런 노력은 이성구청장의 솔선수범에서 비롯됐다. 이성 구청장은 2010년 취임 직후 기존 108㎡였던 집

무실을 1/3 크기인 34㎡로 축소해 화제를 모았다. 전임 구청장이 타던 관용차량을 새 차로 바꾸지 않고 7년을 더 탄 뒤 찾은 고장으로 교체가 불가피해지자 준중형급의 전 기차로 교체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도 항상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며, 청렴하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구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상위 5% 기관에만 주어지는 S 등급을 3년 연속 획득하기도 했다.

백종은 감사실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주민과 공직자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청렴 1등 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6·25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전수

구청 르네상스홀서 故 강대관하사 차남 강병용씨 대리 수상

구로구가 6·25전쟁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전수식을 지난 14일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6·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워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공로자와 그 유족을 발굴해 훈장을 전달하는 국방부 주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수 대상자는 육군 제11사단 고(故) 강대관 하사로, 6·25전쟁 당시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근무하며 3차례 참전해 공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총 3개의 무성 화랑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개최된 이날 전수식에는 이성 구청장이



구로구가 6·25전쟁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전수식을 지난 14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 구청장, 고강대관 하사 차남 강병용씨 부부)

직접 참석해 고 강대관 하사의 차남 강병용 씨에게 훈장, 훈장증, 감사패를 수여했다. 국방부도 국방부장관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성 구청장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예우,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7,391억원 확정 ... 어느곳에 쓰이나

예산 56% 절반이상 4,137억 사회복지분야에 사용

구로구의 2021년도 새해 예산이 올해 6,992억 3천500만보다 399억 2,500만원(5.7%)증가한 7,391억 6,000만원만원으로 확정됐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08억 1,500만원 증가한 7,281억원, 특별회계는 8억 9천만원 감소한 110억 6,000만원이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2020년 3,844억 9,035만원 보다 291억 1,000만원이 증가한 4,137억 5,100만원을 편성해 전체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김현석 기획예산과장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 2021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했고, 일자리 발굴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며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정부의 재정확장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했지만 복지비와 인건비 등 각종 법정필수 경비의 급증 등으로 가용재원이 그리 넉넉지 않은 여건 속에서 전 경영상업비의 증액을 최소화 하고 긴급한 사업과 민생현안 사업 위주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준 주요 분야별 편성 내역이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

전년도 대비 41억 2,300만원 증가한 460억 5,900만원으로,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 31억 7,400만원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80억원 등을 편성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전년도 대비 9억 100만원 증가한 53억 1,700만원으로, 가상안전체험관 설치에 2억 6,700만원, 사회복지부요원 운영에 36억2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교육 분야

전년도 대비 29억 5,300만원 증가한 163억 5,100만원으로, 학교 환경 개선 및 학습여건 개선 사업 추진에 13억 7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61억 3,7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

전년도 대비 10억 9,200만원 감소한 218억 3,300만원으로,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23억 2,700만원,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건립에 10억원 및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에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환경보호 분야

전년도 대비 22억 9,000만원 감소한 364억 7,400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37억 7,900만원, 폐기물 광역처리에 159억 6,2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전년도 대비 298억 1,000만원 증가한 4,137억 5,100만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1,328억 1,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96억 8,2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보건 분야

전년도 대비 28억 6,600만원 증가한 184억 7,600만원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방지 1억 7,600만원,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2억 5,4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7억1,3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전년도 대비 7억 9,100만원 증가한 14억 8,500만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5억4,600만원, 주말농장 운영에 9,6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전년도 대비 19억 8,000만원 감소한 21억 6,800만원으로, 해고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에 11억9,300만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2억 2,4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전년도 대비 27억 8,600만원 감소한 121억 3,300만원으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7억 6,200만원, 오류초교 주변 도로 개설에 6억 300만원, 도로 및 보도 정

“내년 예산 효율적 편성되게 꼼꼼히 심의”

서호연 예결특위위원장

구로구의 2021년도 새해 예산이 올해 6,992억 3,500만원 보다 399억원(5.7%) 증가한 7,391억6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7,281억, 특별회계는 110억6천만원이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다.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을 총괄지휘한 서호연 예결특위위원장은 “집행기관인 구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 19 대응, 일거리 발굴, 지역경제 살리기



등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 없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서호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형주 의원, 위원에는 정대근·김영곤·박평길·김희서·김철수·이명숙·노경숙 의원 등 총 9명이다.

〈김유권 기자〉

분야별 새해 예산 편성액

〈일반회계, 기타,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총 계	728,100,000	100.00
일반공공행정	46,059,058	6.33
공공질서 및 안전	5,317,307	0.73
교육	16,350,798	2.25
문화 및 관광	21,833,435	3.00
환경보호	36,473,606	5.01
사회복지	413,750,669	56.83
보건	18,476,332	2.54
농림해양수산	1,485,425	0.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67,605	0.30
교통 및 물류	12,132,525	1.67
국토 및 지역개발	19,217,495	2.64
예비비	4,032,149	0.55
기 타	130,803,596	17.97

비에 22억 1,4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전년도 대비 21억 6,700만원 증가한 192억 1,700만원으로, 하천 시설물정비에 12억 2,300만원, 구로중앙로 지중화사업에 15억 1,600등을 편성했다.

기 타

○예비비로는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소한 40억 3,200만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부서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전년 대비 53억 7,200만원 증

가한 1,308억 400만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8억 9,000만원 감소한 110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000만원 증가한 6억 2,0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3억 2,000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500만원 등을 편성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억 6,000만원 감소한 104억 4,000만원으로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0억 600만원, 주차장 위탁 운영 28억 1,4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 2021년도 새해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399억2,500만원(5.7%)이 증가한 7,391억 6000만원으로 구로구의회가 지난 16일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한파 취약계층에 전기매트 지원

김한기회장, 성금 1천만원 이어 전기매트 100개 전달

사회복지법인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한기)는 지난 12월 4일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전기매트 100개를 구입해 구로구에 전달했다.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고 추운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독거 어르신, 조손 가정, 장애인가구 등이 집안에서 추위와 힘들게 지내면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보고 한파를 대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매트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김한기 회장은 전기매트는 별도로 지난 11월 25일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온돌담 제막식때 구로구에 성금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사회복지법인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2월 4일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전기매트 100개를 구입해 구로구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재건·이정희 이사, 이성 구청장, 김한기 회장, 윤건영 국회의원, 이용직 이사, 박철성 구의원)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성 구청장과 윤건영 국회의원은 각 복지관과 경로당 등의 시설이 코로나

나 감염증으로 운영되지 못해 집안에서 보내야만 하는 저소득계층에 커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더 춥고 힘든 겨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정형주의원 '2020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하는 '2020년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해마다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행복 정책 발굴과 활발한 지역 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형주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항동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8대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과정 및 구정질문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

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구로구 재생 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서울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구로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서울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공을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오늘의 수상은 구민여러분들께서 더욱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여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연말연시 앞두고 '온정의 손길' 잇따라

연말연시를 앞두고 구로구에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랐다.

구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자)가 9일 관내 저소득

층 30가구에 직접 담근 생강청을 선물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취약계층 25가구에 이불도 후원했다.

8일에는 신도림동 자원봉사캠프(회장 서춘희)가 관내 나눔가게인

도야미리(대표 최홍창)와 뚜레쥬르 신도림 태영점(대표 고용길)의 후원을 받아 홀몸 어르신 10가정에 탕, 밀반찬, 빵을 나눠드렸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신도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구종)가 직접 만든 밀반찬과 떡 등 음식을 저소득 1인 가구 50명에게 전달했다.

기업과 단체의 나눔 후원도 이어졌다.

성락신협(이사장 이창원)이 9일 이불, 전기장판, 조끼 등 방한용품을 관내 저소득 가정 74가구에 지원했다.

8일 NH농협은행 서울시교육청지점(지점장 육진철)이 백미 10kg

30포, 4일 호텔 베르누이(회장 김정희)가 69포, 3일 그린창호산업(주)(대표이사 이창우)이 200포, (사)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회장 김용극)이 30포를 구로구에

기탁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남현교회(담임 목사 윤영배)가 쌀 10kg 50포와 김치 5kg 50박스를 관내 취약계층에게 후원했다. <채홍길 기자>



연말연시를 앞두고 구로구에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랐다. (사진은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서 백미 30포를 이성 구청장에 기탁하고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제적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문의 : **구로희망복지재단 02)867-1695**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774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박종여 의원, 노경숙 의원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의정대상' 수상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박종여 의원, 노경숙 의원이 '2020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죄예방 인물대상은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범죄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 시상식 대신 지난 8일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윤태한 이사장이 구로구의회 의장실을 직접 방문해 개별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박동웅 의장은 평소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치안활동,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박종여 의원, 노경숙 의원이 '2020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공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박종여 의원은 제8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지역 내 안전취약 지역의 환경개선에 힘썼을 뿐 아니라 여성범죄 예방 활동, 봉사단과의 지역순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예방운동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경숙 의원은 현재 안전관리특별위원장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위협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구로구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는 등 구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의 영예로운 상은 범죄예방 활동에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각종 재해 재난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개성에 따라서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는 해에는 올해 이루지 못한 계획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기도 할 것이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일을 계획하다 때를 놓쳤을 때 '배는 이미 떠났다' 혹은 '버스는 떠났다' 라고 탄식을 한



우가 많다. 좋은 본보기로 땅 팔아 장사를 하면 '백이면 백 실패'라는 말이 있다.

땅을 팔아서 장사를 하면 실패로 이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티끌모아 태산이 된

또, 한 해를 보내면서㉞

다. 그러나 배가 떠났다는 것은 새로운 배가 출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자수성가로 부(富)를 축적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롭게 성공의 고지에 도착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거의 대부분은 실패라는 쓰디쓴 약을 먹고 난 후에 재기를 해서 성공하는 경

다는 교훈을 모른다는 점이다. 한꺼번에 목돈이 생겼으니 흥청망청 쓰다 보면 어느 사이에 무일푼이 되기 마련이다. 실패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다는 전제 하에 생겨난 말이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실패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또 한 해를 보내야 하는 12월이 됐다.

<본지 회장>

노인회 구로지회 '은빛봉사단'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따뜻한 나눔-봉사활동 실천 앞장 공로 인정"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지회장 전영수) 소속 '은빛봉사단'이 보건복지부서 주관한 '2020 노인자원봉사클럽 우수사례' 심사결과 우수상을 받아 박승후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소속 '은빛봉사단'은 지난 2018년 11월 21명(코치 1명 포함) 회원들이 참여해 봉사단을 결성하고 2년여 동안 매월 두차례 밀반찬을 만들어 경로당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바자회도 열어 그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이웃돕기 성금

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과 안양천, 도림천 등 환경정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은빛봉사단원들이 지난 3월 관내 194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방역 봉사활동도 펼쳤다.

'은빛봉사단'의 양진수 단장(80)은 "우리 50여명의 단원들이 그동안 따뜻한 나눔 실천과 각종 봉사활동 참여를 인정 받아 기쁘다"며 "우리봉사단을 위해 적극적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은빛봉사단'이 노인자원봉사클럽 우수사례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박석희 지회사무국장이 양진수단장 대신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상장을 전수받고있다>

으로 지원을 아끼지않은 박석희 사무국장과 지회 직원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봉성경 고대 구로병원 홍보팀 차장, 과학커뮤니케이터상 수상

봉성경 고대 구로병원 홍보팀 차장이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2020 과학언론의 밤'에서 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선정하는 '2020 과학언론상-과학커뮤니케이터상'을 수상(사진)했다.

'과학커뮤니케이터상'은 과학·의학 분야의 언론 소통 활성화와 과학문화 저변을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과학



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봉성경 차장은 "무엇보다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고대의료원 홍보팀을 비롯해 올 한 해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에서 병원 홍보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김지현 개봉1동 자원봉사캠프장 '봉사랑 인증패' 받아

김지현 개봉1동 자원봉사 캠프장이 지난 3일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2020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개인별 총 누적 5000시간 봉사활동 인정으로 '봉사랑' 칭호와 함께 인증패를 받았다.

구로오늘신문 시민기자로도 활동 중인 김지현 캠프장은 지난 2004년부터 개봉1동 캠프활동가로 봉사활동 시작해, 2006년 구청 공원녹지과 산사모 활동과 2009년 고척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원으로 활동했다.

또 2011년 개봉1동 자원봉사캠프

프 청소년봉사활동 지도, 캠프상담가 활동과 어르신 말벗봉사, 주민센터 안내봉사, 그리고 어르신택 밀반찬 배달봉사, 맥가이버 봉사단 밀반찬 조리봉사, 어르신택 김장봉사, 주민센터 민원행정 보조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9~2020년에는 어르신 이미용 봉사 및 장수사진 촬영 봉사과 코로나19 대응, 나눔 워크샵 개최, 코로나19 장기화로 필수품인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위한 마스크스트랩 만들기에도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김지현 개봉1동 자원봉사 캠프장이 '2020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5000시간 봉사활동 인정으로 '봉사랑' 칭호와 함께 인증패를 받았다.

적극 참여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봉사랑 인증패를 받은 김지현 캠프장은 "봉사가 즐겁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제중요양병원 '제1기 주니어보드' 출범

제중요양병원은 지난 14일 재단 회의실에서 젊은 직원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평적 소통에 앞장설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가졌다.

주니어보드는 20, 30대 젊은 연령층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이사회로 조직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자 구성된 회의체다.

주니어보드는 앞으로 1년 동안 정기회의 등을 통해 비효율적 업무 관행 개선, 기업문화 혁신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안 사항 중 채택된 우수 내용은 내부 협의를 거쳐 회사



제중요양병원은 지난 14일 재단회의실에서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가운데가 이봉 이사장>

경영에 도입한다. 최기섭 병원 행정원장은 "주니어보드가 젊은 직원을 대표하여 병원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니어보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해 병원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노후건축물 붕괴 예방, 어르신·어린이 안심 케어, 홍수관리... 스마트기술-4000여대 CCTV '빈틈없는 도시 관제' 통합운영센터 기능 고도화 완료 ... 상황판 초고화질 영상 업그레이드

구로구가 스마트기술과 4,000여대의 CCTV를 결합해 빈틈없는 도시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로구는 "각종 도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과 CCTV 대수 증가에 따라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고도화사업을 실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구로구는 2011년 CCTV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청 본관 4층에 223㎡ 규모의 통합운영센터를 조성했다. 지난 5월에는 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물인터넷 사업들을 통합운영센터의 CCTV와 실시간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구축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CCTV 규모 증대(2011년 747대→2020년 3,898대→2021년 4,250대 예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등에 따라 전반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구로구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고도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9월 개선 공사를 시작, 지난달 말 완료했다. 구비 5억2,000만원에 국비 1억원을 더해 총 6억2,000만원을 투입했다.

구는 먼저 통합운영센터 내 상황관을 넓은 시야각의 IPS 패널



구로구가 스마트기술과 4,000여대의 CCTV를 결합해 빈틈없는 도시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각종 도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로 교체했다. 해당 모니터는 CCTV 영상을 4K 초고화질로 구현해 사물 식별이 용이하다. 어둠 속 물체도 선명하게 표시해 야간 긴급 상황 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해졌다.

상황판 디스플레이도 확장했다. 모니터 14대를 추가 설치해 상황판 화면 넓이를 가로 9.7m×세로 1.5m에서 가로 12.1m×세로 2m로 늘렸다.

5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서 빠졌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 서비스, 실외 미세먼지 알람서비스, 제설대책 취약지역 서비스 등도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CCTV와 연결했다.

이로써 구로구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노후건물 붕괴예방) ▲특수학교·어린이·어르신

안심케어 ▲스마트교차로 알림이 ▲주정차단속시스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사물인터넷·공공 와이파이망 운영 ▲홍수관리시스템 등 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스마트 사업들을 한 화면에서 '한 눈에'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구로구는 정보통신 케이블 정비, 회선 확충, 항온항습기 최신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장비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통합운영센터 내 회의실과 근무자 휴게실 등 부대시설도 정비했다.

강영식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기술에 고성능 장비가 더해져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해졌다"면서 "통합운영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로구는 "전국 22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에서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심수현)는 이번 평가에서 평균 91.73(전국 평균 81.11점)점으로 상위 5%(11개)에 들어 최고등급(S)을 획득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 평가'는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평가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다.

여성가족부는 도시유형, 청소년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구, 센터 수 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위기청소년 지원기반조성, 사업인프라, 운영성과, 운영사례 등 평가지표를 합산해 S(최고 등급)~D(매우 미흡)까지 5등급을 산출했다.

평가 결과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획득했으며,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유권 기자〉

올해 친환경보일러 5,804대 설치 지원

올해 보조금 지원 종료 ... 내년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지원

구로구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5,804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했다. 당초 목표보다 138대 늘어난 물량이다.

구로구는 총 11억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가정에 가구당 20~5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2020년 보조금 지원은 종료됐다.

내년에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와 국·시비 예산 감소에 따

라 주택용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해 보조금 지원 신청 시에는 기존 보일러가 10년 이상 경과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보일러에 부착된 제조일·제조번호 표시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지원 계획은 내년 1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구청 환경과 860-2998.

〈한만수 기자〉

관내 10~13호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소

오류2동·천왕숲·온수동·항동 등 4곳 오픈

구로구가 관내 10~13호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개소했다.

구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류2동, 천왕숲, 온수동, 항동 등 우리동네 키움센터 4곳을 새로 오픈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진행하는 초등방과 후 돌봄 사업이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구로구에는 신도림동, 구로1·2·3·5동, 고척1·2동, 개봉3동, 천왕동 등 우리동네 키움센터 9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새로 문을 연 오류2동 키움센터는 서해안로24길 27 2층에, 천왕숲 키움센터는 오리로 1102-6 1층에, 온수동 키움센터는 부일로 875 2층에, 항동 키움센터는 항동

로3길 4 2층에 조성됐다. 모두 코로나19로 개소식이 없던 이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에서는 숙제 봐주기, 학원 챙겨 보내기 등 기본적인 돌봄 활동과 독서,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용시간은 학기 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돌봄도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우리동네 키움포털 홈페이지(<https://icare.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류2동, 천왕숲, 온수동, 항동 등 우리동네 키움센터 4곳을 개소했다. (사진은 항동 키움센터)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가리봉동 주민자치회 '서울시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선정

구로구 가리봉동 주민자치회가 서울시 주관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2년차 이상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22개구, 136개동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했다.

가리봉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모임 분야에 응모해 '우수동'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가리봉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총회, 주민투표, 화상회의 등 안



구로구 가리봉동 주민자치회가 서울시 주관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사진은 온라인 주민총회 모습)

전하고 혁신적인 주민모임을 진행했다. 또한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시 수화통역을 송출하고, 관내 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채홍길 기자〉

관내 확진자 폭증세 심각, 400명도 넘었다

1주일새 80여명 급증 17일 현재 419명... 서울시도 1만3천명 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누적 1만3천명을 넘었고, 구로구 관내 확진자도 400명을 돌파하는 등 폭증세가 꺾이지 않고있다.

17일 현재 구로관내 확진자는 16일 하루에만 개봉동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등 25여명이 집단발생하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80여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419명으로 급증했다.

이날 현재 사망 1명, 266명이 완치 되었, 152명이 치료중이다. 서울시 전체 누적 확진자도 1만

3,458명으로 집계됐다. 관내 400번 확진자(수궁동)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15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16일 양성 확진됐다. 401번 확진자(오류1동)는 확진자가 발생한 타 지역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어 15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고 16일 양성으로 확진됐다.

402번 확진자(구로4동)는 증상 발현에 따라 14일 양천구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15일 양성 판명됐다. 403번 확진자(구로1동)는 14일 양천구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15일 확진됐다.

404번 확진자(수궁동)는 의심증상으로 14일 양천구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고 16일 양성 판명됐다. 405번 확진자(구로5동)는 관내 320번(12.7)·366번(12.14) 확진자의 가족으로 16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오후에 확진됐다.

406번(오류2동)·407번(개봉1동)·408번(개봉1동) 확진자는 관내 미소들병원 관련 확진자로 15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16일 오후 양성으로 판명됐다.

17일 현재 구로구 관내 누적 확진자는 419명으로 치료중 152명,

완치자 266명, 사망 1명 (90대 여성)이며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369명, 해외입국자 270명 등 모두 639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쿠팡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문수 관련 4명, 타시군 접촉자 209명, 해외 입국 5명, 기타 11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9일 현재 모두 1만3,458명으로 사망자는 125명이다. 구형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은 1,037명으로 처음으로 1천명을 돌파했고 ▲송파구가 855명으로 800명을 넘어섰

다. 또 ▲관악구 767명 ▲강남구 750명으로 2개구가 700명을 넘어섰고 ▲서초구 678명 ▲동작구 629명 ▲성북구 615명 ▲노원구 604명으로 4개구가 600명을 넘어섰다. 이어 ▲은평구 553명 ▲중랑구 515명으로 2개구가 500명을 넘어섰고 ▲영등포구 496명 ▲마포구 489명 ▲양천구 489명 ▲동대문구 461명 ▲강동구 453명 ▲도봉구 438명 ▲구로구 419명으로 7개구가 400명을 넘어섰다. 또 ▲서대문구 388명 ▲성동구 357명 ▲용산구 329명 ▲광진구 318명 ▲강북구 310명으로 5개구가 300명을 넘어섰고, 아울러 ▲중구 204명 ▲금천구 201명으로 2개구가 200명을 넘어섰으며 ▲종로구가 194명으로 100명선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서 25명 집단감염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이 집단 발생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요양병원 환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6~17일 24명이 추가 발생, 관련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증가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743명에 대한 검사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4명, 음성 684명이다.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일주일 전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이 나왔으나, 최근 다른 곳에서 해당 요양병원에서 온 환자가 전



개봉1동에 위치한 미소들요양병원에서 지난 15일~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 집단 발생했다. (16일 오후 7시 김지현 개봉1동 시민기자 촬영)

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에 관계자는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와 요양보호사의 신체 접촉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신도림역·오류동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1월 3일까지... 증상 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 검사

구로구가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2개소를 운영한다.

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시 선별검사소를 마련했다.

설치 위치는 신도림역 4번 출구 앞과 오류동역 북쪽광장(3번 출구)이다. 운영기간은 지난 14일부터 1월 3일까지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는 구로구보건소(구로5동)와 고대 구로병원(구로2동) 그리고 구로성심병원(고척1동) 3곳과 함께 5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선별진료소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주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



구로구가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신도림역 4번 출구 앞과 오류동역 북쪽광장(3번 출구)2개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신도림역 4번 출구 앞 임시 선별검사소)

를 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는 익명 검사도 가능하다. 광정희 자치행정과장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에 처해있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검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쌓인 눈 치우고 인증샷 이벤트 도전하세요"

제설 활동 사진 공모... 3월 15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구로구가 주민들의 자율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고, 내 주변 눈 치우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눈 치우기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로구가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전'을 개최한다.

구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고, 내 주변 눈 치우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내 집·내 점포 앞, 보도, 골목길 등에서 눈을 치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단, 관외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안과 같은 공공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된다.

응모기간은 내년 3월 15일까지며 구청 홈페이지 응모게시판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JPG 파일·해상도 300dpi 이상)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 구청 도로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인화한 사진을 직접 제출해도 된다.

구로구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노력상 10명을 뽑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9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구로구는 주민들의 제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각 동주민센터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설 작업 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내 종교기관 17곳과 제설 협약도 맺었다. 구청에서 제설자재와 도구를 지원하고, 종교기관은 자율적으로 인근 도로의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각 동별 지정된 제설도우미들이 제설장비 비치·관리, 이웃 주민들의 눈 치우기 독려 등의 활동도 펼친다.

한편 구로구는 코로나19, 폭설, 강추위 등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도 수립했다. 제설, 한파, 안전사고예방, 보건관리, 화재예방, 생활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등 7개 분야에 걸쳐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채홍길 기자>

제24호 '구로문학' 출판기념회·제9회 '구로문학상' 시상식 열려

시·수필·단편소설·콩트·동화·평론 등 87명 작품 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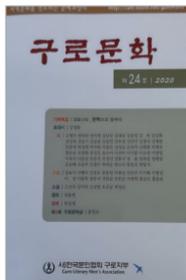
'구로문학상'엔 소설가 홍영숙씨 수상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제24호 '구로문학' 출판기념회 및 제9회 '구로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9일 무영쌈밥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 속 간소하게 열렸다.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회장 장동석) 제24호 '구로문학' 출판기념회 및 제9회 '구로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9일 오후 4시 무영쌈밥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을 준수 속 (사)한국문인협회 이광복 이사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다.

이날 제24호 '구로문학'에는 김대응 시인 등 시 47명과 박종운 수필가 등 16명, 그리고 단편소설, 콩트, 동화, 평론 등 87명의 회원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일상을 바라보며, 코로나19 '문학으로 말하다'란 소재목으로 20편의 시와 수필을 모아 읽을거리가 더욱 다양해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광복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은 "문인은 위대한 실존이고 문학의 송고한 가치"



소설가 홍영숙씨가 제9회 '구로문학상'을 수상했다.(사진 왼쪽)

라면서 "이번 문학지침서의 소명과 사명의식을 갖고 발간되는 '구로문학' 이야말로 구민들에게 문학적인 감흥과 갈망에 대한 한 모금 감로수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제9회 '구로문학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는데, 금년에는 '컬트랩' 단편소설을 쓴 소설가 홍영숙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영숙 소설가는 구로문인협회 부회장으로 '창작수필'로 등단하여 사무국장과 부회장 등 재임 시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주도하고 구로문협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꾸준한 창작활동으로 수필이나 소설 등을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문학성을 인정받아 이날 수상을 영예를 안았다. 상금으로는 100만원이 수여됐다.

한편 장동석 구로문인협회 회장도 "문학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가치"라면서 "앞으로 우리 회원들은 더욱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구로구의 융성한 문화 발전과 지역문화를 선도하는데 주력하여 구민들의 삶과 정서를 향상시키고 일류 문화도시를 만드는 일에 그 중추적 역할을 다 할 것

초대시

낮선 동행

시인 信火 오현월



주검 같은 어둠 회색 툰으로
무겁게 하늘 덮는 먹구름
내 집 빈곤한 살림살이 같은
궁색한 눈 몇 송이 날리고
질척이는 골목만 어수선한 날

내게 동반을 자처한
그다지 반갑지 않은 놈이 있어
그놈의 근본을 밝히기 위해
혈액이 말해 주는 수치와
배설물을 뒤척이는 해괴한 의식을
온종일 반복해도
까막눈으로 보일이 만무하다

물론 함양 미달의 저급했던
비루한 생의 여로에서
귀신처럼 달라붙은 이놈을
영험한 무당의 힘이라도 빌어
퇴마 할 수도 없는 일

진정 호의 적일 순 없지만
함께 가야 할 운명이라면
이놈의 취향과 관심사 파악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인데
그저 내 손을 바라보는
저 까막 눈들을 봐서라도
부디 암전히 함께 하자꾸나

- 서정문학 초대기획실장
- 만해 한용운 황금찬 시맥회장
- 문학광장 초대회장
- 시집: 달빛 청사, 바람의 그물 등.

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24호 '구로문학'은 구로구청으로부터 출판비 전액을 지원받아 479쪽 광대한 분량으로

발간했으며 작년 10월에는 (사)한국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문학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김유권 기자>

60~65세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39, 1층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